

## 외국인 묘지 기념물의 디테일 특성

- 양화진 외국인 묘지공원을 사례로 -

이상석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 The Characteristics of Monuments in a Cemetery - In the Case of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Park at Yanghwajin -

Lee, Sang-Su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monuments in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t Yanghwajin, a place where many prominent Christian missionaries and other Christians have been buried near Choltusan. I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gravestone details, the researcher has divided the details into 4 analysis categories: forms, symbols, epitaphs, and materials.

For this research, 281 monuments were selected including 68 of missionaries, 26 of U. S. Army Soldiers, and 13 of teacher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ere 26 types of monuments. This includes simple and standardized types like the tablet, headstone, marker, and monolith. These were used more often than other shaped types such as the Cross, obelisk, sculpture, etc. Standardized types made in Korea have been preferred after the 1950s even though the beauty of the gravestones has been degraded. Symbolical decorations related to religious, social, professional or military emblems were also introduced to strengthen their symbolical objectives. Among them, the Cross was the most predominant Christian symbol and emblem. The families wanted to inscribe epitaphs, the greater part of which originated from the Bible, poems, idioms related to tribute, rest, supplications to deity, love, achievement, to express human sentiment and religious faith. When using materials for making monuments, monument makers have mostly used stone because of its durability. Until the 1950s, various stones had been used to make monuments, for most marble and granite were brought from foreign countries. These were very different from the Korean white marble stone used for many monuments. After the 1950s, the source of stone has been limited

---

†Corresponding author : Sang-Suk Le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on 540-742, Korea, Tel. : +82-61-750-3874, E-mail : lss@sunchon.ac.kr

to Korean stone, for Korean could make stone monuments that foreigners were agreeable. Especially, a black marble stone called "O-Suk" which means black stone, has been used as a main material.

The study identifi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monument details in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t Yanghwajin. First, Christianity has been applied as the main concept, while symbolizing the homogeneity of religious, family, social, professional or military groups by having the symbolic form, symbol, and epitaph in common. Second, monuments made after the 1950s have been standardized into unattractive and monotonous forms by the limited materials, and so the beauty of the monuments has been degraded.

*Key Words : Monument, Christianity, Gravestone, Symbol, Cross*

## 1. 서론

과거를 기억하고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기념물로서 묘지는 인류 모두에게 공용되어 왔으며 여기에는 인간의 다양한 의지가 반영되고 고도의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이상석, 2001: 72). 이러한 묘지에는 죽은 사람의 개인적 생애와 정신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다양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묘비가 설치되었으며, 이것은 인간의 가치, 종교적 믿음 등 다양한 주제가 집적되어 표현된 야외박물관이다(Brown, 1994: 1; Felson, 1996: viii).

서양에서 묘지의 구성요소로서 묘비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등장한 신흥 중류층이 그들의 묘지를 위한 기념물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묘지의 기념물은 일부 상류층인 귀족이나 부호들을 위한 것으로 호화롭고 장식적이었던 반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기념물은 오늘날 묘비와 같이 단순화된 형태로 만들어졌다(Weaver, 1915: 33; Sheridan, 1983: 78). 현대로 오면서 묘비의 사용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지금은 지역과 문화를 뛰어 넘어 묘지를 대표하는 기념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묘비의 디테일은 경제·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가공기술 및 사용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건축이나 조각과 같은 예술사조의 영향(Burgess, 1963: 61)<sup>1)</sup>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종교, 인종, 지역에 따라 독특한 양식을 취하여 왔다.

본 연구의 대상인 양화진 외국인 묘지공원에는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근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선교사 및 개신교인의 묘지가 있으며, 이곳에는 조형적인

다양한 묘비가 만들어져 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와 관련하여 Clark(1998)은 묘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신희철(2003)은 선교사들의 업적에 대한 기초연구를 한 바 있으나 묘비의 디테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외국인 묘지의 묘비는 서양으로부터 국내에 도입된 기념물로서 그 사례가 많지 않고 그동안 연구의 관심밖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서양에서는 묘비의 디테일 요소에 대한 연구, 묘비에 나타난 상징적 주제에 관한 연구, 묘비의 조각가에 대한 연구, 묘비의 역사 및 고고학적 가치에 대한 연구, 묘지의 장소적 특성에 대한 연구, 묘비의 보호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져 왔다.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온 묘지의 디테일 요소에 대한 연구는 비문의 내용적 특성(Wright, 1988), 레터링의 특성이나 문자 심볼(Baird, 1992), 향아리, 손, 아치, 십자가와 같은 심볼(Linden, 1980; Patterson, 1989; Forbes, 1990; Lean, 1990) 등의 디테일의 기원에 대하여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묘비의 특성에 관해서는 민속예술(Bergengren, 1982), 인종(Little, 1989; Gradwohl, 1997), 종교(Freeman, 1993), 문화(Ridlen, 1996) 등의 상징적 주제가 어떻게 묘비에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과 비교해볼 때, 본 연구는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여 구한말부터 선교와 외교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 외국인의 묘비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사례에 대한 연구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설치된 묘비의 디테일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며, 구체적

으로는 묘비의 디테일 요소인 형태, 상징적 표기, 비문, 재료에 나타난 디테일의 특성과 상징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19세기 말 이래로 한국에 전파된 기독교는 이제는 신도가 1000만 명에 달하는 종교로서 성장하였으나 기독교의 종교적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설계매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경디테일 설계의 다양한 매체를 제공하고 설계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종교적 상징적 요소를 찾아내고, 양화진 외국인 묘지의 장소적 의미를 고양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II. 양화진 외국인 묘지의 개요

### 1. 묘지의 역사

본래 양화진은 아름다운 풍치로 한강연안의 절경으로 유명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수도 방위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양 삼진(三鎭)의 하나였다. 이러한 입지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초기에 인천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교사가 통과하는 서울의 관문인 동시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점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구한 말에는 대원군의 병인박해(丙寅迫害)로 천주교 신자들의 목이 잘렸던 비극적 사건의 현장이기도 하였다.

양화진이 외국인을 위한 묘지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 북장로회의 한국 최초 선교사이며 고종의 시의(侍醫)였던 헤론(Heron)이 1890년 7월 26일 급환으로 별세(서울에서 숨진 최초의 서구인)하자 묘지를 설치할 장소의 선정 문제가 발생하였다. 당시 도성 안에는 시신을 매장할 수 없었고 인천에 있는 외국인 묘지까지 한여름 더위에 시신을 운구하는 것이 곤란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 알렌과 언더우드 등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5개국 공사들은 공동명의로 양화진을 외국인 공동묘지로 허락해 줄 것을 청원하게 되었다. 마침내 1893년 10월 24일 조정으로부터 묘지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아 헤론을 처음 안장함으로써 양화진 외국인 묘지공원이 터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화진 외국인 묘지는 일제 때에는 '경성 구미인 묘지'로 불리다가, 광복 후 '서울 외국인



그림 1. 양화진 묘지의 위치도

묘지'로 바뀌었고 1986년 선교기념관의 건립과 함께 '서울 외국인 묘지공원'으로 개칭되었으며, 현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다(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회, 1986).

### 2. 묘지의 현황

현재 묘지의 면적은 13,224m<sup>2</sup>로 완만하게 경사진 동산 위에 묘지가 위치하고 있다.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회(1986)는 묘비가 없는 무덤 80여기와 어린 묘지를 제외하고 남은 묘지의 수는 425개소라고 하고 있으나, Clark(1998)는 1998년 현재 묘비석이 없는 23개소의 묘지와 성공회 묘역 상부의 아이들 묘지를 제외하고 총 376개로 집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1998년 이후 설치된 11개의 묘지를 포함하여 2003년 6월 현재 387개소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묘역 내에는 향후 추가적인 묘지 수요를 고려하여 비워져 있는 공지와 예약되어 있는 예약지가 다수 있어 향후 묘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묘지공원에는 한국기독교 선교기념관과 부대시설로서 주차장과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범위

국내에 위치한 외국인 묘지는 서울 양화진 묘지 이

외에도 인천, 진주, 전주, 공주, 광주, 평양, 대구, 부산 유엔묘지가 있으나, 연구의 대상으로 양화진 외국인 묘지를 선정하였다. 선정이유는 첫째, 양화진 외국인 묘지는 기독교에 근간을 둔 선교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묘역으로 상징적 주제의 동질성이 있으며, 둘째 다른 묘지는 규모가 작아서 분석이 어려운 반면, 양화진 묘지는 연구에 충분한 표본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1893년 처음 묘지가 조성된 이래 1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묘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조성된 묘지는 387개소에 달하지만 분석가치가 낮은 유아 묘비 72개소와 묘비가 없는 묘지를 제외하고 남은 281개소의 묘비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하였다. 문헌조사는 분석대상인 묘비에 대한 관련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현장조사는 묘비의 디테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걸쳐 시행되었으며, 각 묘비에 대한 사진촬영이 병행되었다.

묘비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추모하고 죽은 사람의 개인적 이력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 종교적 상징, 국가 및 집단의 정체성 등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묘비에 있어서 상징적 표현은 묘비의 형태, 상징적 표기, 비문, 재료의 이용을 통하여 가능하다(American Monument Association, 1947; Brown, 1994). 이 밖에 레터링, 주변의 장식 등이 추가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묘비에서 나타나는 디테일 요소로서 묘비의 형태, 상징적 표기, 비문, 사용재료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묘비의 형태는 그 기원이 다양하므로 다양한 분류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형태, 재료, 묘비의 기능과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분류(American Monument Association, 1947: 45)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화진 묘비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서 26종으로 구분하였다<sup>2)</sup>.

상징적 표기는 단순한 그래픽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심오한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그들의 믿음과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이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난해한 개념들이 간단한 상징적 표기에 의해 표현되기도 한다(Gibson, 1996: 21). 이러한 심볼은 민족, 인종, 종교적 동질성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Whittick, 1961: 10)을 하므로 상징성 분석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묘비에 나타나는 상징적 표기를 19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묘지의 비문은 묘비를 세운 가족이나 관계자의 중요한 감정과 생각을 의미 있는 언어로써 표현한 문장이나 인용문으로(American Monument Association, 1947: 45), 비문의 내용에는 유족이나 관계자들의 슬픔, 종교적 믿음, 영혼의 위로,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 등을 반영할 수 있다(Brown, 1994: 20). 본 연구에서는 비문의 내용을 영혼의 위로, 사랑, 슬픔, 기억, 업적, 우정, 개인의 어록, 가훈, 신에게 기원, 신의 교시, 현신에 대한 찬사, 영면과 휴식 등 1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재료의 사용은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재의 종류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재료의 고유한 물성은 묘비의 형태와 상징적 표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Weaver, 1915: 213). 이러한 이유로 화강석은 매우 단단하여 표면에 간단히 글자를 새겨 넣는 정도로 사용되었던 반면, 대리석은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었으며, 자유롭게 상징적 표기와 비문을 새겨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묘비에 사용된 주요 재료를 화강석, 대리석, 자연석, 청동, 복합재료로 구분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화강석과 대리석은 색채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 IV. 묘비의 디테일 특성

### 1. 일반현황

#### 1) 성별

성별 구성은 남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는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한국에 와서 활동하던 많은 사람들이 선교, 외교, 그리고 군대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 결혼 후 동반된 가족이거나 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표 1a 참조).

2) 국가

국가별로는 미국인의 묘비가 119개소(42.3%), 영국 19개소(6.8%), 러시아 14개소(5.0%) 등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는 1893년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결정될 당시 외교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인의 묘비가 많은 것은 한국전쟁과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이밖에 영국인들도 선교사, 성공회의 주교, 구세군, 간호사로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과 봉사를 하였으며, 특징적으로 러시아인은 대부분 러시아 정교인으로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피난해 온 사람들이다(표 1b 참조).

3) 종교

양화진 외국인 묘지는 개신교인을 위한 묘지인데, 교파 분류가 가능한 경우, 선교의 목적으로 한국에 온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구세군 등에서 파견한 선교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초기 개신교의 선교활동은 미국의 북장로회와 남장로회, 감리교, 영국의 성공회와 구세군, 캐나다 장로회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표 1c 참조).

4) 직업

직업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나 이중에서 선교사가 가장 많으며, 이 밖에 왕실군대의 자문관,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 미군과 관련된 사람, 구한말 외교관이나 교육자, 광산 및 석산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가나 기술자들이 다수 있었다(표 1d 참조).

2. 묘비의 형태

묘비의 형태는 유형별로는 타블렛형 89개소(31.7%),

표 1. 묘비의 일반적 특성

a: 성별

구분	빈도(%)	구분	빈도(%)
남	171(60.9)	2인 이상*	20(7.1)
여	77(27.4)	미상	13(4.6)

\*: 1 개의 묘지에 2인 이상 합장된 경우임.

b: 국가

국가	빈도(%)	국가	빈도(%)
미국	119(42.3)	필리핀	3( 1.1)
영국	19( 6.8)	스웨덴	2( 0.7)
한국	25( 8.9)	스코트랜드	3( 1.1)
러시아	14( 5.0)	폴란드	1( 0.4)
캐나다	8( 2.8)	일본	1( 0.4)
프랑스	6( 2.1)	독일	2( 0.7)
이태리	4( 1.4)	미상*	74(26.3)

\*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부모의 국적은 외국인 유아의 묘비 48개소 포함.

c: 종교

종교	빈도(%)	종교	빈도(%)
기독교 <sup>a</sup>	77(27.4)	YMCA	2( 0.7)
장로교	33(11.7)	복음전도교	2( 0.7)
감리교	24( 8.5)	그리스도교	1( 0.4)
성공회	20( 7.1)	안식교 <sup>b</sup>	1( 0.4)
러시아정교	10( 3.6)	유아	48(17.1)
구세군	8( 2.8)	미상	55(19.6)

<sup>a</sup>: 교파분류가 곤란한 기독교인

<sup>b</sup>: 공식명칭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d: 직업<sup>a</sup>

직업	빈도(%)	직업	빈도(%)
선교사	68(24.2)	저널리스트	1 ( 0.4)
사업가	8( 2.8)	양재사	1 ( 0.4)
외교관	8( 2.8)	가정주부 <sup>b</sup>	9 ( 3.2)
간호사	5( 1.8)	사회봉사자	1 ( 0.4)
의사	1( 0.4)	미국군인	26( 9.3)
선원	3( 1.1)	군인 <sup>c</sup>	3( 1.1)
회사종업원	4( 1.4)	유아	48(17.1)
엔지니어	10( 3.6)	교육자	13( 4.6)
음악가	1( 0.4)	정부관료	5( 1.8)
구세군	6( 2.1)	학생	1( 0.4)
주교	2( 0.7)	미상	57(20.3)

<sup>a</sup>: 직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 직업을 반영

<sup>b</sup>: 결혼한 여성중 뚜렷한 직업이 없는 경우

<sup>c</sup>: 미군을 제외한 외국 군인

표 2. 묘비의 형태

유형	종류	빈도(%)	유형	종류	빈도(%)
타블렛	수평형	50(17.8)	십자가	라틴	21( 7.5)
	원반형	9( 3.2)		러시아 정교	6( 2.1)
	침두형	8( 2.8)		소형	4( 1.4)
	수직형	8( 2.8)		켈틱	3( 1.1)
	일반형	7( 2.5)		앵글리칸	2( 0.7)
	장식침두형	4( 1.4)		장식기단형	1( 0.4)
	상부장식형	3( 1.1)		레저	십자가
헤드스톤	대형	41(14.6)	옆개용		3( 1.1)
	소형	30(10.7)	조각물	8( 2.8)	
모노리스	1면경사형	16( 5.7)	오벨리스크	7( 2.5)	
	4면경사형	12( 4.3)	자연석	4( 1.4)	
	2면경사형	2( 0.7)	복합형*	4( 1.4)	
마커		25( 8.9)	한국 상징형	2( 0.7)	

\*: 형태가 2가지 이상 복합되어 있는 것

헤드스톤 71개소(25.3%)로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보편적인 묘비의 유형으로 밝혀졌으며, 이밖에 십자가형이 37개소(13.2%), 모노리스 30개소(10.7%), 마커 25개소(8.9%) 등이 다수 사용되었다.

종류별로는 수평형 타블렛, 대형 헤드스톤, 소형 헤드스톤, 마커, 라틴 십자가 등 5개 종류가 167개소(59.4%)로 보편적인 묘비의 종류로 밝혀졌다.(그림 2a, 2h, 2i, 2j, 2m 참조) 가장 많이 사용된 타블렛은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묘비의 유형이기도 하지만 광복 이후 묘비를 제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당시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하던 상석을 수직으로 세워 사용함으로써 서양의 타블렛과 같은 형태가 되도록 사용하였기 때문이다(이강필 집사의 증언, 2003년 9월 27일). 헤드스톤의 경우, 수직면이 기둥을 나타내고 호형아치의 상부는 하늘을 의미하는데, 형태가 단순하고 제작이 용이하여 외국인 묘지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 이밖에 모노리스나 마커는 서양에서 사용하는 묘비의 기본적 형태이므로 많이 사용되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십자가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카톨릭의 상징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묘비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Brown, 1994: 25). 외국인 묘지에서 많이 사용된 십자가로는 켄모어(Kenmore) 묘지의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의 라틴크로스(그림 2m 참조)와 비시타프(Vishtakh) 묘지의 러시아 정교 십자가(그림 2n 참조)를 들 수 있다. 이밖에 르장드르(Legendre) 묘지의 켈틱 십자가(그림 2p 참조), 터너(Turner) 묘지의 앵글리칸 십자가(그림 2q 참조), 호프(Hope)묘지의 누운 십자가(그림 2s 참조), 하인츠(Hintze)묘지의 장식기단 십자가(그림 2r 참조) 등이 일부 사용되었다.

조형적인 묘비의 형태로는 조각물, 오벨리스크, 자연석, 한국상징형이 사용되었다. 조각물이 묘비로 사용된 것은 그림 2v와 같은 줄리(Joly)의 묘비에서 볼 수 있는데, 원형기둥에 꽃과 덩굴식물 등 다양한 상징적 표기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켄드릭(Kendrick)의 묘비에서는 표면을 조각하여 생명감을 연출하고 있다. 한편, 고대 이집트로부터 기원한 오벨리스크는 하늘을 향하는 인간의 의지와 죽은 사람의 명예와 업적을 고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념물인데, 그림 2w와 같은 벨(Bell) 묘지의 오벨리스크는 표면에 새겨진 십자가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 자연석은 생명의 영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브리엔(Brien)의 묘비에 사용된 자연석은 자연스러운 생명감을 연출하고 있으며, 베어드(Baird)의 기와지붕형 묘비는 외국인 묘지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특징적 요소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묘비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는데 1950년대를 기준으로 하여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 이전에는 제작이 어렵고 조형성이 높은 십자가, 조각물, 자연석, 오벨리스크가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비교적 제작이 용이하고 단순한 형태인 타블렛, 헤드스톤, 모노리스, 마커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50년대 이전에는 한국의 묘비 제작기술이 떨어져 대부분의 묘비를 외국에서 생산하여 반입한 반면, 그 이후에는 주로 국내에서 생산하여 설치하였는데 이때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타블렛이나 헤드스톤과 같은 단순한 형태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이강필 집사의 증언, 2003년 9월 27일). 또한 그림 2k와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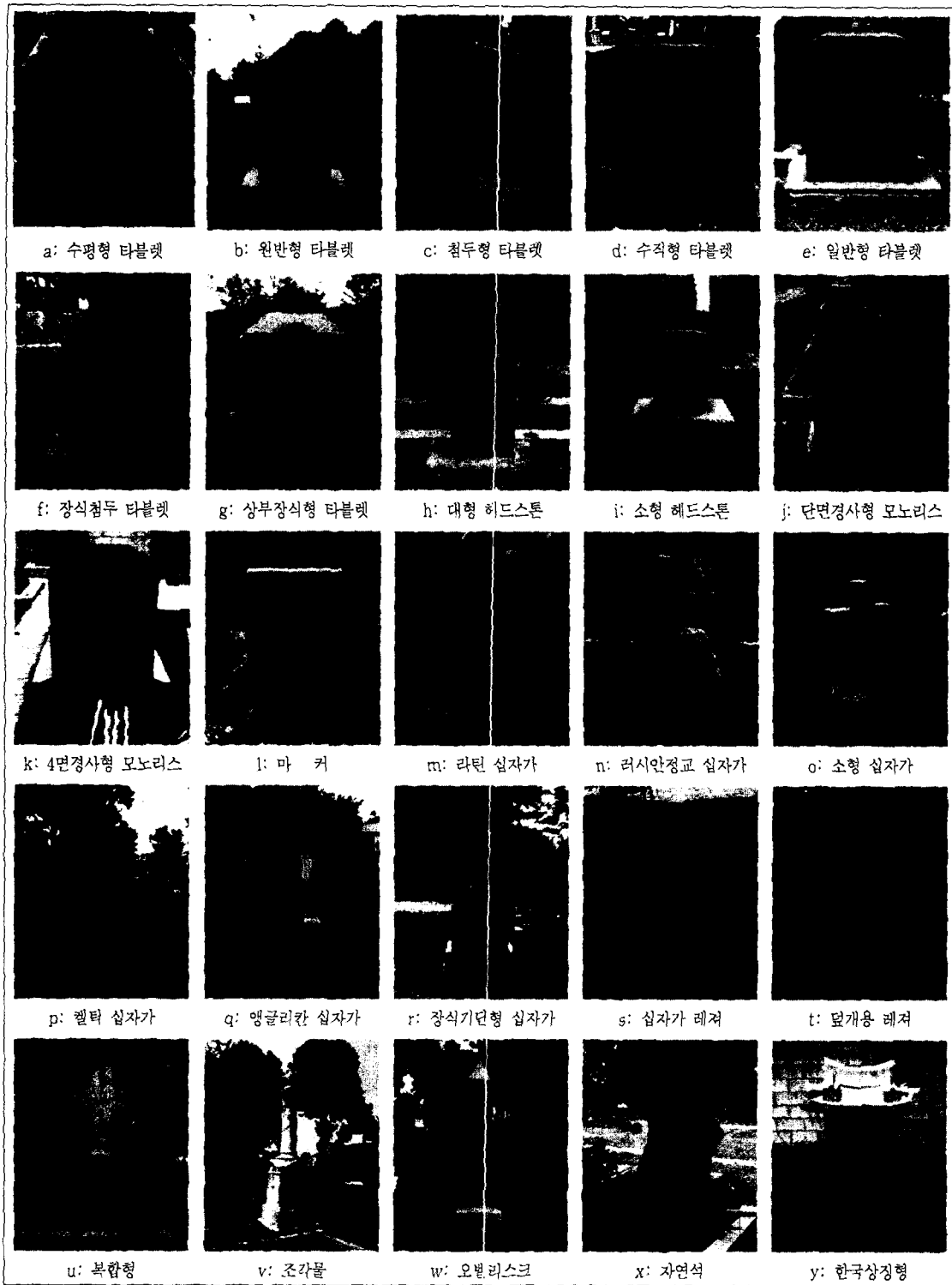


그림 2. 묘비의 종류

표 3. 시대별 묘비의 형태

연도 \ 형태	헤드스톤	타블렛	마커	모노리스	십자가	레저	조각물	자연석	한국 상징형	복합형	오벨 리스크	계
1900년 이전	1	6	0	0	5	0	2	0	0	0	2	16
1901~1910	5	8	2	3	7	1	2	0	1	1	1	31
1911~1920	16	4	2	2	3	1	1	0	0	1	2	32
1921~1930	11	9	1	2	1	0	2	0	0	0	1	30
1931~1940	2	8	1	1	4	0	1	2	1	0	0	20
1941~1950	2	2	1	3	5	1	0	1	0	0	0	15
1951~1960	4	5	6	1	0	1	0	0	0	0	0	17
1961~1970	9	16	5	1	0	0	0	0	0	0	0	31
1971~1980	4	5	4	5	1	0	0	0	0	1	0	20
1981~1990	1	15	1	6	0	0	0	0	0	1	0	24
1991~2000	1	11	2	6	0	0	0	0	0	0	0	20
계	56	89	25	30	29	4	8	3	2	4	6	256

\* : 전체 묘비는 281개소이지만 제작연도가 불명확한 묘비가 25개소 결측값으로 처리되었음.

언더우드(Underwood), 아펜젤러(Appenzeller), 에비슨(Avison), 홀(Hall), 쥘슨(Jensen), 쇼(Shaw) 등 일부 가족 묘지에서는 가족별로 동일한 형태의 묘비를 사용하여 가족의 일체감을 부여하였고, 그림 2n과 같은 러시아정교의 십자가는 러시아인의 집단적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 3. 상징적 표기

상징적 표기는 전체 묘비 중 104개소(37%)에 나타나고 있는데, 종류별로는 십자가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이밖에 구세군 심볼, 장식문양, 문자심볼, 열려진 성경책, 석공심볼, 천사, 카이-로, 3엽, 물병 등 기독교와 관계된 상징적 표기가 다수 사용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십자가는 채드웰(Chadwell)의 묘비에 새겨진 장식형 라틴십자가(그림 3a 참조)와 에커트(Eckert)의 묘비에 새겨진 대형 십자가(그림 3b 참조)와 같이 사용되어 상징적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상징적 표기 중 미군 십자가, 구세군 마크, 석공심볼,

표 4. 상징적 표기

상징적 표기	빈도(%)	상징적 표기	빈도(%)
없음	177(63.0)	석공심볼	3( 1.1)
십자가	57(20.3)	레비-피쳐	2( 0.7)
구세군 심볼	6( 2.1)	장미	2( 0.7)
장식문양	8( 2.8)	카이-로	1( 0.4)
문자심볼	5( 1.8)	3엽	1( 0.4)
스크롤	4( 1.4)	무궁화	1( 0.4)
가족문자	4( 1.4)	천사	1( 0.4)
복합형	4( 1.4)	꽃병	1( 0.4)
열려진 성경책	3( 1.1)	플르드리	1( 0.4)

가족문자 심볼은 특정 집단에서 공유되는 상징물로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군 십자가 심볼은 십자가에 원을 두른 형태로서 묘비에 음각되거나 청동판에 양각되어 새겨져 사용되었고(그림 3c 참조), 구세군 심볼은 구세군묘비의 상부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그림 3d 참조). 한편, 석공 심볼(그림 3k 참조)은 18세기로부터 기원된 것으로 석공의 집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석공이 작업과정에서 기울이는 노력을 믿음의 성숙과 종교적 발전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외국인 묘비에서도 석공의 심볼은 석공의 집단적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거나 선교사인 쟈센(Jensen)의 묘비와 같이 종교적 상징을 위해 사용되었다. 가족문자도 대부분 가족의 성(姓)을 강조하거나 피터스(Pieters)의 묘비와 같이 성의 첫 문자를 장식적으로 디자인한 문자심볼을 사용하여 가족의 동질성을 표현하였다.(그림 3h 참조) 가족문자와 유사하게 문자심볼이 사용되었는데, 대부분은 카사티(Casati)의 묘비(그림 3f 참조)와 같이 평안속의 휴식(Rest in Peace)을 의미하는 "R. I. P"가 사용되었으나 드물게 스크랜톤(Scranton)의 묘비에서 예수를 그리스어로 표현한 "IHCOCY"의 라틴식 약자인 "IHS"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사용된 상징적 표기로는 레비피쳐(levi pitcher), 천둥(cherubs), 카이-로(chi-low), 3엽(three foil), 플르디리(fleur-de-lys), 그리고 무궁화가 사용되었다. 그림 3i와 같은 레비피쳐는 종교적인 의식에 앞서 성직자의 손을 씻는 심볼(American Monument Association, Inc., 1947: 18)로서 성스러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그림 3m과 같은 천둥은 기독교에서 하늘과 땅 또는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신에 의해 창조된 영적인 상징물(Gibson, 1996: 36)로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지만 외국인 묘지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o와 같은 카이-로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의 상징으로 현대에 들어와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데, 그 기원은 후기 로마제국의 군기에 사용된 문양으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의 처음 2글자 X(chi)와 P(rho)를 나타내므로 기독교의 믿음을 나타내는 심볼(Gibson, 1996: 40)로서 이용되었다. 그림 3p와 같은 3엽은 삼위일체(American Monument Association, Inc., 1947: 25)와 성녀 마리아를 의미(Gibson, 1996: 56)하는데 장식적인 문양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상징적 표기는 기독교의 종교적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매체로서 사용되었으며, 일부 구세군 마크나 가족문자가 집단을 상징하기 위한 표기로서 사용되었다.

#### 4. 묘비문

표 5. 비문

비문	빈도(%)	비문	빈도(%)
기본형*	147(52.3)	개인의 어록	3( 1.1)
헌신에 대한 찬사	27( 9.6)	가족의 경구	3( 1.1)
기도문	24( 8.5)	슬픔	2( 0.7)
영면과 휴식	23( 8.2)	영혼의 위로	2( 0.7)
신에게 기원	16( 5.7)	기억	2( 0.7)
사랑	13( 4.6)	신의 교시	1( 0.4)
개인의 업적	11( 3.9)	우정	1( 0.4)
영생	6( 2.1)		

\*: 가장 보편적인 비문으로 이름, 출생일, 사망일만 기록된 경우임.

이름, 출생일, 사망일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묘비는 147개소(52.3%)이며, 상징적인 비문을 적은 묘비는 134개소(47.7%)로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비문에 기록된 내용은 대부분 성경, 시, 개인의 어록으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그 내용은 헌신에 대한 찬사, 기도문, 영면과 휴식, 신에게 기원, 사랑, 개인의 업적, 영생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비문의 내용을 보면, 헌신에 대한 찬사는 아펜젤러(Appenzeller) 묘비의 "Not to be ministered unto but to minister(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니라)"(그림 3j 참조), 기도문은 무어(Moore) 묘비의 "Those things which we have seen and heard, we declare unto you(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증거 하노라)", 영면과 휴식은 갤리(Galle) 묘비의 "He lets me rest in fields of green grass and leads me to quiet pools of fresh water(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고 생명수의 조용한 못으로 인도하신다)"(그림 4b 참조), 신에게 기원은 힐(Hill) 묘비의 "Promoted to higher service jesus, jesus, precious jesus", 개인의 업적은 브록맨(Brockman) 묘비의 "Seek Builder, Peace Maker, Friend(일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한국인의 친구)"(그림 4c 참조)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일부 비문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Blessed are the dead who died in the Lord", "Until the day come", "We love you"와 같은 비문은 선호되는 비문으로서 여러 묘비에서 사용되었으며, 언더우드 일가 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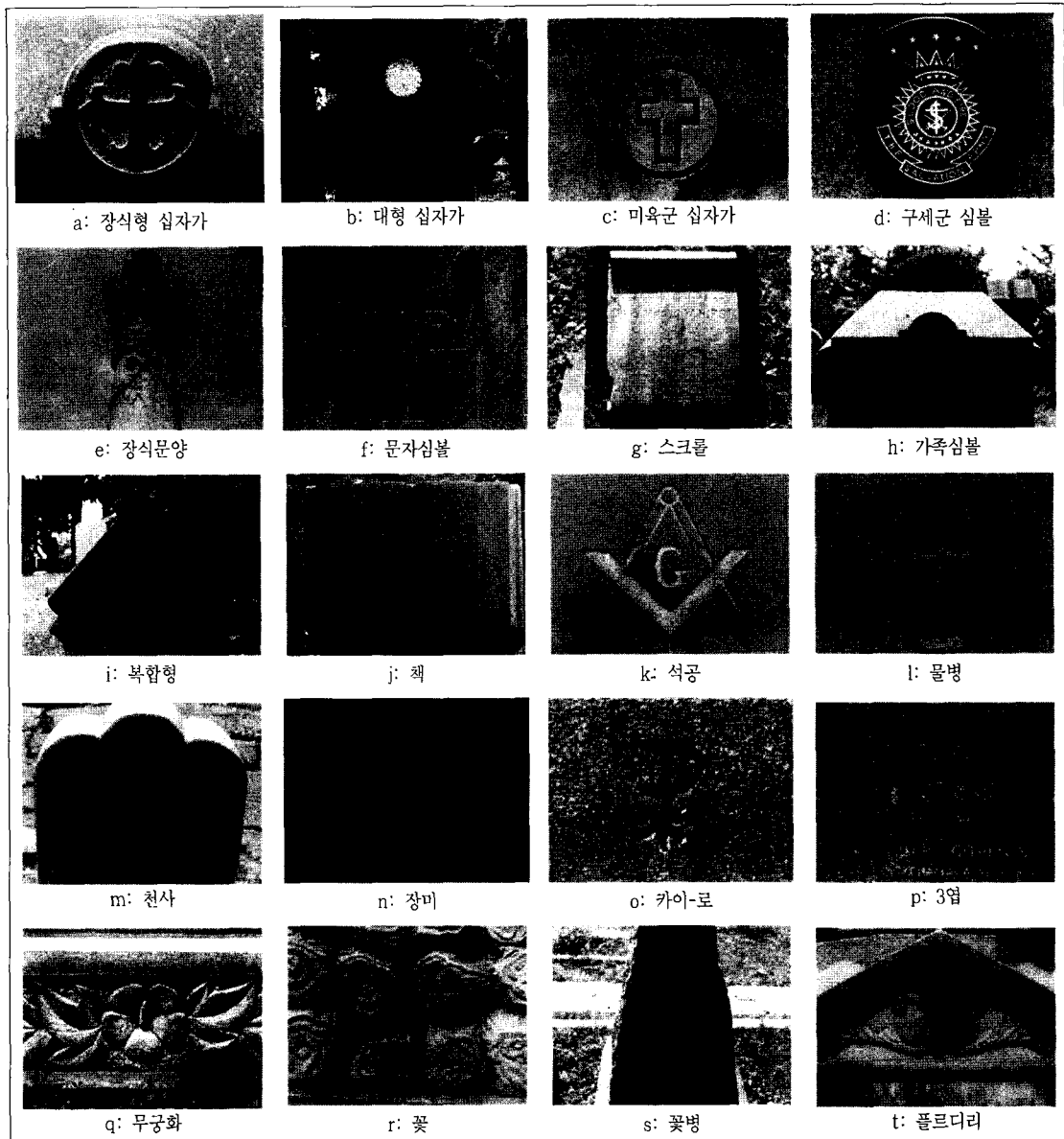


그림 3. 상징적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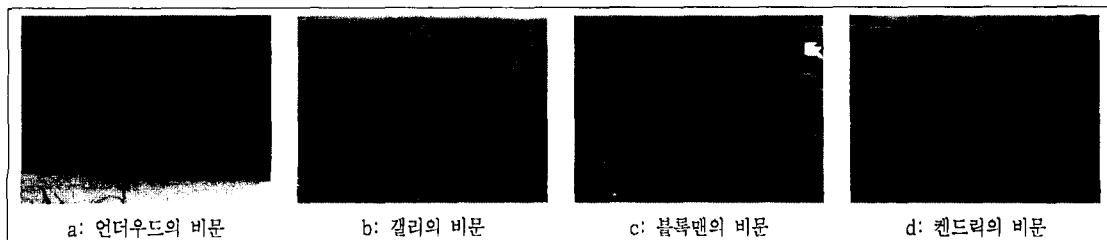


그림 4. 비문의 내용

의 "Be always joyful; pray continuously; give thanks whatever happens"은 가족의 비문으로 반복하여 사용되었다.(그림 4a 참조) 한국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비문으로서 켄드릭(Kendrick) 묘비의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그림 4d 참조)와 헐버트(Hulbert) 묘비의 "I woul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in Westminster Abbey(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비문은 당시 선교사들의 한국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다.

5. 묘비의 재료

묘비의 재료는 대부분 내구성이 높은 석재가 사용되었으며, 드물게 석재와 청동이 조합되거나 청동, 자연석으로 만든 것이 사용되었다. 석재의 종류별로는 화강석 137개소(48.8%), 대리석 126개소(44.8%)로서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었으며, 색채별로는 흑색계열 대리석이 88개소(31.3%), 회색계열 화강석 68개소(24.6%), 흰색계열 화강석 44개소(15.7%), 흰색계열 대리석 38

표 6. 사용재료

사용재료	빈도(%)	사용재료	빈도(%)
흰색계열 화강석	44(15.7)	흑색계열 대리석	88(31.3)
회색계열 화강석	68(24.2)	복합재료	11( 3.9)
흑색계열 화강석	10( 3.6)	자연석	4( 1.4)
적색계열 화강석	15( 5.3)	청동	3( 1.1)
흰색계열 대리석	38(13.5)		

개소(13.5%)로 나타나고 있다(표 6 참조).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매체의 특성상 종교적인 상징보다는 재료의 색을 이용하여 죽음을 상징하거나 죽은 사람과 관련된 지역에서 생산된 석재를 이용함으로써 개인이나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석재의 이용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1930년대 이전에는 한국에서 드물게 생산되는 흰색 대리석이나 다양한 석재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대부분의 묘비석을 외국으로부터 반입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다르게 1950년대 이후로는 오석이라 불리는 흑색계열의 대리석이 대부분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국

표 7. 시대별 묘비의 사용재료

형태 년도	흰색계열 화강석	회색계열 화강석	흑색계열 화강석	적색계열 화강석	흰색계열 대리석	흑색계열 대리석	자연석	청동	복합재료	계
1900년 이전	2	3	0	2	7	2	0	0	0	16
1901~1910	5	12	1	2	6	3	1	0	1	31
1911~1920	9	10	1	1	6	3	0	0	2	32
1921~1930	6	9	3	1	4	6	0	0	1	30
1931~1940	4	7	0	2	0	6	1	0	0	20
1941~1950	2	3	2	4	0	3	1	0	0	15
1951~1960	0	6	1	2	3	5	0	0	0	17
1961~1970	0	4	1	0	5	21	0	0	0	31
1971~1980	2	1	0	0	6	7	0	2	2	20
1981~1990	1	2	0	0	0	18	0	1	2	24
1991~2000	0	4	1	0	0	12	0	0	3	20
계	31	61	10	14	37	86	3	3	11	256*

\*: 전체 묘비는 281개소이지만 제작년도가 불명확한 묘비 25개소가 결락값으로 처리되었음.

내의 석재 가공기술이 발전하여 더 이상 석재를 외국으로부터 가져올 필요가 없었으며, 아울러 오석은 물갈기나 광내기 따위를 하면 시각적으로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묘비석으로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이다(표 7 참조).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설치된 묘비의 형태, 비문, 상징적 표기, 재료 등 디테일 요소의 특성과 상징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묘비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1950년 이전에는 십자가, 조각물, 오벨리스크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묘비가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타블렛, 헤드스톤, 모노리스, 마커와 같은 단순한 형태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 형태로 사용되었다. 상징적 표기로는 다양한 심볼이 도입되었는데, 대부분이 기독교와 관련된 것으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형태와 마찬가지로 십자가 심볼은 가장 중요한 상징적 표기로 사용되었다.

비문은 주로 성경, 기도문, 시, 그리고 개인의 어록으로부터 인용된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죽은 사람의 헌신에 대한 찬사, 기도문, 휴식, 사랑, 영생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표현되었다. 재료에 있어서는 내구성이 높아 영속성이 있는 석재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재료의 색을 이용하여 죽음을 상징하거나 죽은 사람과 관련된 지역의 석재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화강석과 대리석은 주요한 매체로 이용되었는데, 특히 흑색계열의 대리석, 회색계열의 화강석, 흰색계열의 화강석, 흰색계열의 대리석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양화진 외국인 묘지의 묘비 디테일을 통한 상징적 표현의 주제는 기독교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상징적 표현을 위해 십자가의 형태의 묘비를 사용하고 십자가 심볼이나 성경 및 기도문을 인용한 비문을 표현하여 기독교의 종교적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둘째, 기독교 내에서도 집단의 동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종파마다 러시아 정교 십자가, 성공회 십자가, 켈틱 십자가, 구세군의 심볼, 감리교의 심볼을 통하여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려고 하였으며, 아울러 고유한 형태의 묘비나 문자기호를 사용하거나 가족의 성을 강조한 글자체를 묘비에 새기어 가족의 동질성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대별로 묘비의 형태와 재료의 사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1950년대 이전에는 조형성과 장식성이 뛰어난 묘비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타블렛, 헤드스톤, 모노리스, 마커와 같은 표준화된 형태와 흑색계열의 대리석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묘비의 디테일이 단순화되고 상징적 표현이 줄어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구대상이 되었던 묘비는 19세기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의 제작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남겨진 묘비에 근거하여 연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조사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묘지의 묘비에는 기독교의 종교적 상징요소와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디테일 요소들이 나타나 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종교적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설계매체가 부족하고 설계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조정설계나 디테일 설계를 위한 많은 상징적 표현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는 구한말 한국의 근대사에 큰 기여를 한 역사적 사건의 증인들이 묻혀 있고, 그들이 한국을 위해 활동한 많은 선교 업적과 한국전쟁과 같은 시간의 흔적이 남겨진 중요한 장소로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외박물관이기도 하다. 향후, 국내에 위치한 다른 외국인 묘비와 미국 등 유럽에 만들어진 묘비와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묘지의 장소적 의미를 밝히기 위한 역사 및 고고학적 측면의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를 위하여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시고 직접 증언해 주신 이강필님과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박사님에게 감사 드립니다.

- 주 1. 첨두형 묘비(pointed arch headstone)에서는 고딕양식, 원반형 묘비(discoid headstone)에서는 바로크양식, 보다 간단한 형태의 수평형, 호형아치 묘비(retangular and segmental arch headstone)는 신고전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현대에는 이보다 단순화되고 표준화된 형태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묘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Little, 1998: 12).
- 주 2. 묘비의 형태적 분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보편화되지 않은 외래어는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하였으며, 원래의 영어 표기는 다음과 같다. 수평형 타블렛(horizontal tablet), 헤드스톤(headstone), 크로스(cross), 마커(marker), 원반형 타블렛(discoid tablet), 첨두형 타블렛(pointed tablet), 수직형 타블렛(vertical tablet), 오벨리스크(obelisk), 러시아인 크로스(Russian cross), 장식첨두형 타블렛(decorated point tablet), 켈틱 크로스(celtic cross), 달개용 명판(ledger), 앵글리칸 크로스(anglican cross), 누운십자가(cross ledger)
  - ② 타블렛은 슬래브와 같은 얇고 평면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묘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헤드스톤으로 분류되지만 외국인 묘지에서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묘비의 상부가 호형아치(segmental arch)의 형태를 하고 있는 헤드스톤과 구분하기 위해 별도로 분류하였다.
  - ③ 마커는 지표면을 따라 높거나 경사진 형태로 만들어진 묘비석이나 크기가 작은 묘비이며, 모노리스는 묘비가 입체적으로 볼륨이 있고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형태이다.

### 인용문헌

1. 신호철(2003) 양화진 선교사, 서울: 양화진 선교회.
2. 이상석(2001)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경디테일의 특성, 한국조경학회지 29(5):71-83.
3.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1986) 서울외국인묘지공원 안내서.
4. American Monument Association, Inc.(1947) Memorial Symbolism, Epitaphs and Design Types, Boston: American Monument Association, Inc.
5. Baird, Scott(1992) Language Codes in Texas German Graveyards, Markers: AGS Journal 9:217-256.
6. Bergengren, C.(1982) Folk Art on Gravestones, Markers: AGS Journal 2:178-194.
7. Brown, J. G.(1994) Soul in the Stone:Cemetery Art From America's Heartland, Kansas: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8. Burgess, F.(1963) English Chrutyard Memorials, London: Lutter Worth Press.
9. Clark, D. N.(1998)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t Yanghwajin, Seoul: Seoul Union Church.
10. Felsen, G.(1996) Tombstones, Berkeley: Ten Speed Press.
11. Forbes, H. M.(1990) Symbolic Cemetery Gates in New England, Markers: AGS Journal 7:1-16.
12. Freeman, J. A.(1993) The Protestant Cemetery in Florence and Anglo-American Attitudes Toward Italy, Markers: AGS Journal 10:
13. Gibson, C.(1996) Signs & Symbols, New York: Barnes & Noble.
14. Gradwohl, D. M.(1997) Cemetery Symbols and Contexts of American Indian Identity, Markers: AGS Journal 14:1-33.
15. Lean, D. M.(1990) Origins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Celtic Cross, Markers: AGS Journal 7:231-272.
16. Linden, B. M. G.(1980) The Willow Tree and Urn Motif, Markers: AGS Journal 1:111-118.
17. Little, M. R.(1998) Sticks & Stones,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8. Little, M. R.(1989) Afro-American Gravemarkers in North Carolina, Markers: AGS Journal 6:103-135.
19. Patterson, N. L.(1989) The Hand as Symbol on Nineteenth Century Ontario Gravestones, Markers: AGS Journal 6: 181-208.
20. Ridlen, S. S.(1996) Tree-Stump Tombstones: Traditional Cultural Values and Rustic Funerary Art, Markers: AGS Journal 13:44-73.
21. Sheridan, A. (tr)(1983) The Speac of Death, Ragon, M. L'espace de la mort: Essai sur l'architecture, la decoration et l'urbanisme funeraires,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22. Weaver, L.(1915) Memorials & Monuments, London: The Offices of "Country Life".
23. Whittick, A.(1961) Symbols Signs and their meaning, Newton: Charles T, Branford Company.
24. Wright, R. A.(1988) Poem in Stone, Markers: AGS Journal 5:169-209.

원 고 접 수 : 2003년 10월 8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03년 12월 15일  
 3인의명 심사필